



“나이는 숫자에 불과 맨몸 액션 문제없어요”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을 법한 가난한 동네인 아리동. ‘더는 내려갈 집값도 없는’ 낡은 주택이 즐비하고, 노인과 대학생 등 1인 가구가 몰려 사는 곳이다.

이 동네 터줏대감인 심덕수(백운식)는 열쇠수리공이자 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주다. 입만 열면 세입자들에게 월세 폭축을 하는 꼬장꼬장한 인물이다.

어느 날 아리동에서 30년 전 발생했던 미제사건과 비수한 수법의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홀몸노인들이 한 명씩 죽어 나가고, 심덕수의 연립주택에 세 들어 사는 여대생마저 실종된다.

오는 29일 개봉하는 영화 ‘반드시 잡는다’는 2003년 개봉한 ‘살인의 추억’(1986)의 30년 후 버전쯤 된다. 노인 심덕수와 전직 경찰(성동일)이 의기투합해 30년 전 미제사건의 범인을 쫓는 스릴러영화다.

이 작품에는 젊은 스타 배우가 나오지 않는다. 대신 백운식·성동일·천호진·배중옥 등 이름만 들어도 목직한 중견 배우들이 활약한다.

특히 백운식을 위한 영화화고 해도 무방하다. 올해 나이 만으로 일흔인 그는 스쿠터를 타고 범인을 쫓고, 빗속 결투까지 벌인다. 모든 역할을 대역 없이 직접 해냈다.

22일 서울 삼정동에서 만난 백운식은 “자주 나이 이야기 꺼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지금도 여전히 피가 끓는다”며 웃었다.

백운식은 이 작품에서 젊은 배우들도 연기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맨몸 액션과 강철 체력을 과시한다. 그는 “추운 겨울에 비를 뿌리는 등 기후 조건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체력적으로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틈날

영화 ‘반드시 잡는다’ 심덕수 역 백운식

일흔 나이에도 대역없이 혼신의 연기

강렬한 존재감에 ‘대체불가 배우’ 불려

때마다 스포츠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많이 움직이면서 체력을 유지한다고 했다. 그 덕분에 허리 사이즈 32를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다.

1970년 KBS 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백운식은 48년 차 베테랑 배우다. ‘범죄의 재구성’에서 사기꾼 대부 김 선생, ‘싸움의 기술’의 은둔 고수 오관수, ‘타짜’에서 전설의 타짜, ‘관상’의 김중서, ‘내부자들’의 논설위원 이강희 등 작품마다 개성 강한 연기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대체불가 배우’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다.

연기의 달인인 그이지만, 새 영화 개봉을 앞두고 긴장 되기는 마찬가지인 듯했다. “배우들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가 출연한 작품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긍정적으로 보게 되지 않아요. 저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야박하다고나 할까요? 연륜이 쌓인다고 해도 그런 점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에 출연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일직이 좋았고, 소재 역시 그동안 한국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소재여서 관심을 두게 됐다”면서 “매 작품 관객에게 다른 캐릭터, 다른 맛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모든 배우의 욕망이자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큰 인기를 끈 웹툰 ‘아

리동 라스트 카우보이’(원작자 제피가루)가 원작이다.

백운식에게 배우로 활동 중인 아들 백서빈의 이야기를 꺼냈다. 백서빈은 12월 7일 개봉하는 영화 ‘산상수훈’에 출연했다. 공교롭게도 부자의 영화가 극장에 동시에 간판을 달게 됐다.

백운식은 “아들 이야기를 꺼내줘서 감사하다”면서 “아들이 의미 있는 영화에 출연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신인들에게 연기 조언을 부탁하자 “연기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면서 “혼자 개척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한 단계씩 타득하다 보면 자기가 어느 판에 오게 됐는지 스스로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백운식은 지난 정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소회도 밝혔다.

“지난해 11월 런던 한국영화제 ‘백운식 특별전’이 열려 런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관객으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저는 민감하고 피 끓는 청년기 때도 암울한 독재 시대를 겪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이런 꼴은 안 겪었구나’ 생각하니 다행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백운식은 그러면서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배우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금은 주만등(주말)이 대로 캐스팅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작활동을 하면서 나이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화면에 비치는 대로 캐스팅이 이뤄져야죠. 배우는 등·퇴장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사라지는 것도 아름답게, 멋있게 사라질 것입니다.”

연습뉴스



‘기록소년단’ 된 방탄소년단

‘트위터 최다 활동 그룹’ 기네스북 등재

그들 방탄소년단이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은 ‘트위터 최다 활동’(Most Twitter engagements) 남성그룹 부문에서 리트윗 수 15만2천112회로 지난 9월 발간된 ‘기네스 세계기록 2018’에 등재됐다. 리트윗은 트위터에 게재된 메시지(트윗)를 타인에게 재전송하는 것으로, 이번 발표는 5월 11일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했다.

‘트위터 최다 활동’ 부문 남성 뮤지션은 워너비의 멤버 해리 스타일스(영국, 18만607회), 여성 뮤지션은 비욘세(미국, 3만3천83회), 여성 그룹은 피프스 하모니(미국, 1만1천103회)가 올랐다.

기네스월드레코드 측은 20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트위터에 “지난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있었던 방탄소년단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축하한다. 한국 밴드가 음악 그룹으로는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2018년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됐다”는 글과 함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무대 선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게재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씨어터에서 열린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K팝 그룹 최초로 공연을 펼쳤으며 이후 이와 관련한 트윗은 2천만 건 발생했다.

방탄소년단이 이같은 영향력을 보이자 미국 CNN 인터내셔널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 ‘CNN 투데이’는 지난 21일 ‘K팝 센세이션’이란 주제로 이들의 인기 요인을 분석했다.

UCLA의 김석영 연극영화방송학부 교수는 방송에서 “방탄소년단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K팝 그룹이고, 아이(팬클럽)라는 거대한 팬덤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의 춤과 노래는 프로페셔널하고 힘을 기반으로 하는 대단한 그룹”이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유명하게 된 이유에 대해 “뮤직 비디오키가 아주 정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통해 10대의 강력한 팬덤을 이끌며 K팝을 알리고 있다”며 “그들은 음악을 직접 프로듀싱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리더 RM은 프로듀싱 능력뿐 아니라 훌륭한 음악적 재능을 펼치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습뉴스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양코르 MBC 스페셜 (남자, 우리와 사랑에 빠지다)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최충우돌 만국유랑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제보자들	50 2017 지구촌 어린이 돕기 희망 더하기 <구간지 판>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국제상 수상작 시리즈 바다의 제국 50 UHD 한식	50 내 남자의 비밀(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돈꽃(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목 보림설계 55 닥터 365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가드	50 생생정보 스페셜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팔도팔상 스페셜	5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25 똑? 똑! 키즈스쿨 55 볼글어 사랑해	00 뉴스브리핑
3	00 도전! K-스타트업 2017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25 헬로킴치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55 MBC 파워메거진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 토크쇼
5	00 KBS 뉴스 5 15 공감다큐, 사람 35 숨터 40 남도 스페셜	00 토이캡 15 터닝메카드 R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이브닝 뉴스 30 돌아온 복단지 (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나눔의 행복, 기부 55 UHD 한식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정글의 법칙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내 남자의 비밀	05 천년의 전라도 스페셜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매드독(재)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45 세상기록 48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UHD 특집다큐 2부작 화산섬 으뜸꼴			
10	35 KBS 뉴스라인	00 매드독	00 돈꽃	00 이판사판
11	00 청소년드라마 <인턴데>	10 고백부부(재)	15 MBC 스페셜 <중가시절>	10 자기야-백년손님
12	0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인간극장 스페셜	15 세상의 모든 다큐(재)	1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테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동양의 길 <평양 구경 잘했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똑막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덩동덩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수확이 아홉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30 플링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박영란의 배추동치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겨울기획 동고동락 2편 -여행을 떠나요) 12:40 지식체널e 12:45 명의(재) 13:40 EBS 특별기획 시대와의 대화 <2부 분자세포생물학자 박상대>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이어로 삼국지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수확이 아홉(재)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17:15 울감한 소꿉친 레이 17:30 똑막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기쁜부부의 노래)	20:50 세계테마기행 <적도 위에 푸르른, 미크로네시아 4부 태평양 횡단 버스 타고> 21:30 한국기행 <취해볼까 가을 제주 4부 바다곳간 물리는 날> 21:50 과학 다큐 버온드 <미생물 인간> 22:45 다문화 고부열전 <일 벌이는 시어머니, 뒷담당은 며느리 똥> 23:35 불랑시어클럽 24:05 지식채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3일(음 10월 6일 甲寅)

<p>子</p> <p>48년생 목자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바가 많다. 60년생 가까운 이외의 사이에 발전적인 일이 생기겠다. 72년생 최근의 것이 가장 유력하다. 84년생 새가 깃을 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형상에 비유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92, 77</p>	<p>午</p> <p>42년생 남비를 최소화 하자. 54년생 탐탁스럽지 않더라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순탄하다. 66년생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활로가 보이리라. 78년생 다 모아야 할 때다. 90년생 확실한 안정권에 진입하게 되는 수준이다. 행운의 숫자 : 82, 54</p>
<p>丑</p> <p>49년생 재한다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겠다. 61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 73년생 방심한다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 85년생 공리를 잘 하아서 대처하지 않으면 반드시 봉쇄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7, 16</p>	<p>未</p> <p>43년생 논의한다면 훨씬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 55년생 부족하다면 좀 보태면 되는 것이다. 67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79년생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91년생 순간의 방심은 커다란 손해를 부른다. 행운의 숫자 : 57, 49</p>
<p>寅</p> <p>50년생 척으로 인한 혼동의 피해가 상당할 수다. 62년생 궁극적인 목표로 이른다. 74년생 아무리 아깝고 잊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련을 버려야 결단을 내릴 수 있다. 86년생 적역이 아니니 미련을 버리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28, 80</p>	<p>申</p> <p>44년생 자율적인 것이 편하리라. 56년생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지어다. 68년생 항상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자세가 중한 시점이다. 80년생 평판을 의식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85</p>
<p>卯</p> <p>51년생 귀에 거슬리더라도 따르는 것이 맞다. 63년생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75년생 불만이라면 오래도록 집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87년생 기쁨을 나누는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43, 28</p>	<p>酉</p> <p>45년생 정면으로 대응하여 승부를 내야만 후환이 없다. 57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자. 69년생 초심을 뒤흔들만한 강력한 유혹 앞에 노출되리라. 81년생 예기치 못한 판세로 난감한 입장에 놓이리라. 행운의 숫자 : 35, 24</p>
<p>辰</p> <p>52년생 응동성을 발휘한다면 까다로운 정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64년생 당해 문제가 별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76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88년생 잠신한 발상은 성공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94, 47</p>	<p>戌</p> <p>46년생 미래를 대비하는 이만이나 다가 온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58년생 소강상태이다. 70년생 노파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2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성숙한 열매가 맺는 면모이다. 행운의 숫자 : 21, 57</p>
<p>巳</p> <p>53년생 가볍게 주고받는 말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65년생 정답한다면 자신을 얽매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77년생 조금만 더 진력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89년생 오랫동안 공들여 왔던 곳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45, 70</p>	<p>亥</p> <p>47년생 화재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느니라. 59년생 이것을 택하지나 감을 잃을 것이 뻔하고 저것을 취하지나 을을 잃게 되는 국망일 것이다. 71년생 실리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83년생 철저히 대비해야만 이룰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4, 3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